

성탄주일
특별
선설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복음2:8-14〉



곽 은 주 목사 (샘물교회)

징글벨 곡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산타클로스가 변화가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가 백화점 등 여기저기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구나!’ 하며 모두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글벨,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등은 크리스마스의 상징물처럼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겨지게 된 데는 그 나름의 전래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기사를 보면, 맨 처음 크리스마스는 결코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시골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굿간 구유에 누워 있는 한 갓난 아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 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천사는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의 예언대로 응답되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오심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도 주목하지 못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사건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선택임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이지만, 우리 마음은 너무 많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겠다고 사람이 되시어 찾아오셨을까! 광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 세상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허무와 실패, 그리고 가난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함께 맛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되심을 포기하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사망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방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미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씻을

능력이 우리에게서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영혼과 삶 전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자 사랑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완악한 죄인인 우리에게서 살 길이 열린 날이요, 주님께서 죽으러 오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굿간의 구유에 누이게 된 것은, 본래 우리 모습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구유와 같은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삶을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안으로, 생명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마1:23)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에게도 내일이 있다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안에도 머무르며, 삶과 생활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빛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원한 삶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그 분과 동행하며 날마다 천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날이며,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 기쁨과 평화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과 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찬양합시다.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对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日本그리스도教会와의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매년 1회씩 가지는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와 일본그리스도교회(CCJ)와의 18회 선교협력위원회를 지난 11월26일 일본그리스도교회 카시와기(柏木)교회에서 가졌다.

KCCJ에서는 총회장 조영철목사를 비롯하여 신 임원들과, CCJ에서는 대회의장 久野真一郎목사와 섭외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금년에도 위원회는 2부로 구성하여 제1부에는 공개 강연회, 2부는 중래의 위원회를 가졌다.

먼저 제1부의 강연회는 立教大学の 니시하라 렌타(西原廉太)先生를 초청하여 <개혁교회-성공회의 국제대화> 히로시마회의의 보고의 강연을 들었고 제2부의 선교협력위원회에서는 양 교단의 과제를 함께 나누었다.



한일 5교단 선교사에 관한 실무자 회의 개최

11월18일, 19일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한일 5교단 선교사에 관한 실무자회의를 가졌다.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측의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와 일본기독교단(UCCJ),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PCK), 기독교대한감리회(KMC), 한국기독교장로회(PROK)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선교사 파송, 훈련, 현지적응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금번 회의는 지난 3년 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김병호총간사가 <일본 선교사 인재 양성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고 이 제안에 의견을 모아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5년~10년 후에 쓰임받게 될 인재를 발굴하여 한국에서 <일본선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금번 회의에는 총회장 조영철목사를 비롯하여 김종현목사, 정연원목사, 그리고 KCCJ 사례 발제자로 村馬은혜전도소 박영철목사가 참석하였다.



한국 선교협약 8교단과의 총무·사무총장 협의회 개최

지난 11월20일 서울에서 우리 총회와 선교협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8 교단의 총무 및 사무총장 협의회를 가졌다.

2014년 7월, 하코네에서 가진 7교단 협의회 이후 5년 만에 가지는 협의회로서, 각 교단의 당면 과제를 나누고 KCCJ로서는 2020년 10월에 개최하는 <제9회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회의>에의 협력 요청과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에 대한 지원요청 등을 하였다.

8교단과의 원활한 협력과 연락을 위해 조강신목사(대신총회 총무)를 창구로 하여 추진해 가기로 하였으며, KCCJ에서는 총회 임원 및 데이빗 매킨토시선교사, 그리고 한국 각 교단과의 넓은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금번 협의회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한 구자우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가 동행하였다.



중부지방 찬미·성구암송 대회 개최 종교개혁502주년 기념예배 드려



10월27일(주일) 나고야교회에서는 종교개혁502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지방회장 정수환목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롬10:17)는 설교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여성연합회 주최의 찬미 성구암송대회를 가졌다. 또한 나가노교회 김진명장로가 태풍 제19호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중부지방 청년회의 젊음이 넘치는 찬송도 있었다.

금번 사랑상에는 나고야교회, 희망상에는 기후교회, 그리고 신앙상에는 토요일시교회가 받았으며 120여 명이 참석한 축복된 찬미대회였다. (보고 : 정혜자)

關聖連 邑久光明園 가족교회 방문 필드 워크 통한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져

10월19일, 관서지방회 성가대 연합회(關聖連)가 오카야마교회 신도와 함께 35명(목사 2명 포함)이 邑久光明園 가족교회를 방문하였다.

이번에는 瀬戸内 한센병 인간회복재단 후원회 대표 難波幸矢씨로부터 <생명, 살아가는 것>이라는 증언을 듣고, 이어서 이웃에 위치한 국립 요양소 長島愛生園을 방문하며 필드워크를 하였다.

그 후, 邑久光明園 가족교회에서 합동예배를 드렸다. 예배중에 關聖連은 <은혜 알게 하소서> 라는 찬양을 하고 京都南部

教会 許伯基목사가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여> (렘31:3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996년도부터 시작하여 이번 22번째 방문은 요양소 필드 워크를 통하여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 : 森克之)



전국여성회

전화상담 「색동」 개설 15년 「마음 케어국」 으로 명칭 변경

2004년 9월 11일부터 「여성을 위한 전화 상담 색동」을 개설한지 15년이 지났다. 오늘날까지 여성회 회원의 기도와 지원, 세계기도일로부터의 헌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전화 상담 색동」 개설에 수고해주신 여러 선배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개설 후 첫 2년간은 상담 건수가 매우 적었고, 2006년부터 무료전화 전국 공통 DV 핫라인 가입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3월말에 전국 공통 DV 핫라인의 종료와 더불어 상담 건수가 다시 급감. 현재는 전화 상담 색동 유료 회선만으로 제 1,3,5 토요일 13~16시에 1인 체제로 상담을 받고 있다.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마음의 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전화 상담의 사명을 감당해왔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통신수단의 발달, 상담 방법의 다양화 등 여러 상황을 보며 단락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전국여성회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상담 접수, 강좌 등이 간사이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고, 전국 활동으로써 공유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제 62회 정기대회에서 「전화상담국」을 「마음케어국」으로 명칭 변경 결정.

내년 1월부터 전화 상담은 예약제로 변경 (제 1,3,5 토요일 13~16시 접수). 긴급 이외 후일 담당자가 응답. 또한 각 지역 여성회와 연수회를 공동 개최하여 배움을 공유하고 각 교회에서 마음의 케어에 중사할 인재 육성을 지향하려 한다.

앞으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노인 학대, 가정 폭력, 성폭력, 이주 외국인의 인권 침해 등 작은 자에 다가가는 전국여성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성을 위한 전화상담

성폭력·파워하라스먼트·가정폭력
아동학대·자녀교육 등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첫걸음...

색동

☎ 06-6731-1616

제1·3·5주 토요일 오후1시~4시

서부여성회

제32회 수양회 개최 코베,가와니시,무코가와와사모가간증

서부지방 교회여성연합회 제32회 수양회가 2019년 9월10일~11일,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모의 기도」라는 주제로 Seapal Suma에서 개최되었다. 주제 발제에는 코베, 가와니시, 무코가와교회의 사모의 간증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 일본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등을 들으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또 서부지방회에 속하는 각 교회의 기도제목과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고 : 윤풍자)



熊本教会

김성효목사가 표창 받아 형무소 교정활동의 감사장으로

2019년11월6일 福岡 矯正(교정) 관구 교해사(敎誨師) 연수 오키나와 대회에서 熊本교회 김성효목사가 熊本형무소에서 교정 활동의 공로로 福岡교정 관구장 표창을 받았다. 김목사는 2005년부터 교해사로 취임한 후, 매월 4~5명의 수용자와의 개인 교해와 격월로 가지는 15명 정도의 그룹 교해, 크리스마스 축제, 부활절 축제를 가지고 또한 지역의 구치소와 소년 형무소와 소년 감별소에서도 활동해 왔다.



신도 선교사로서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

조현규 목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재일대한기독교회 모든 교회와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別府교회는 온천의 도시 大分県 別府市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別府교회의 시작은 이해관목사가 別府지역에 한국에서의 유학생들 몇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때는 아직 예배 처소가 없어 日本基督教団 不老町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후 2005년에 지금의 예배처로 옮기고, 2008년부터는 신치선목사가 목회하였고 2018년부터 부족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別府교회의 특징은, 유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APU대학, 別府대학, 그리고 일본물리대학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한인 유학생들이 많고, 그들이 別府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온 유학생, 지금은 없지만 이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別府교회는 젊고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많은 반면,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귀국을 하거나, 동경 혹은 후쿠오카 등지의 대도시로 취업을 하게 됨으로 교회를 떠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別府교회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신도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공부를 마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취직해서 어딘가 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넘어 전세계로 주님의 복음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別府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감당해 갈 것입니다.

別府교회의 기도제목은, 첫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도 선교사 300명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別府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고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곳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別府교회가 세워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직분자들이 더욱 세워지는 것입니다. 현재, 장로 1명, 서리집사 4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더욱 세워져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別府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2019년 11월 3일에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년동안 한결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방문 수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방문기 <2>

오사카교회 정연원 목사

이 글은 총회 대표단이 2019년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조선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으로)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이하 '조그련'으로)을 방문한 후, 참가한 정연원목사의 개인적 소감을 정리하여 전합니다.

4.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방문과 봉수교회 예배

금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일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방문과 봉수교회의 주일예배 참석이었다. 평양에 도착하여 첫 밤을 지내고 7월 28일(주일) '조그련' 관계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결정되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걱정을 하던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안내를 맡은 분은 "선한 일 하시는 분들이 오시니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덕담(德談)을 해주었다.

대동강변에 있는 숙소인 평양호텔을 출발하여 평양역과 광복거리를 거쳐 보통강을 왼쪽으로 끼고 대표단을 태운 승합차는 비를 뚫고 언덕을 오르고 우산을 쓰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교회 가는 교우들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중에 숙소를 출발한지 20여 분 만에 봉수교회에 도착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봉수교회는 현재, 공화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기관인 '조그련'의 본부와 신학교와 목사 사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봉수교회는 '조그련'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에서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이다. 최초의 봉수교회당은 1988년 11월에 건축이 되었고 국가가 토지를 제공하고 북한 교인들의 헌금과 해외교회 지원금 일부로 건축되었으며 '조그련'에 소속된 교역자와 지도자(목사, 전도사, 장로)가 30여명, 가정교회에 속해있던 교인 300명이 처음 시작을 하였으니 매우 탄탄한 교회로 출발하였다. 당시 신자들은 평

양의 가정교회에 속해 있었던 교우로서 평균 연령은 50대였다고 한다.

이후 2005년 11월10일 남북협력사업의 차원에서 2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기존 교회를 완전히 헐고 600평 규모의 교회당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건축위원장을 남한교회를 대표하여 김용덕장로가 책임을 지고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지상3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당회실, 접견실, 성가대실, 2층은 1,000석의 예배당과 3층은 방송실, 유아실을 준비하고 음향, 영상, 동시통역등 총공사비 한화 33억원이 소요된 초현대식 교회당이다. 재건축된 봉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남선교회 전국연합회와 '조그련'과 봉수교회측이 협의를 했고, 2005년 11월에 시작되어 2년간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2007년 12월 입당예배를 드렸으며 2008년 4월6일 남북교회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헌당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다음 호에는 봉수교회 예배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2020年度 宣教師・神学生研修会案内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神学校を卒業し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 ・日 時 : 2020年3月8日(主日) 17:00 ~ 14日(土) 17:00
- ・場 所 : (講義・宿泊) 在日總會神学校(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5-1)
- ・履修課目 : KCCJ神学・宣教理念・憲法・規則、在日同胞史、KCCJ歴史、日本教会史・神学、エキュメニカル神学、KCCJ教会・礼拝・礼典・説教など、總會行政・年金・福祉など日本生活全般。
- ・交通費・参加費 : 在日總會神学校が負担します。
- ・参加される方は2020年2月7日まで総幹事に連絡してください。(総幹事080-4377-3927)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안내

제12차 호주 멜본대회 참가자 모집

- 일 시 : 2020년2월18일(화) 16:00 - 21일(금) 09:00 3박4일
- 장 소 : 멜본 한빛교회
- 주 제 : "디아스포라, 화해와 회복을 위해 남은 자들" (요엘2:32, 고후5:18-19)
- 참 가 비 : US\$300 (3박4일 비용)
- 마 감 : 2019년12월31일
- 신청과 문의 : 김병호총간사 (080-4377-3927)